

개혁신학 양서 연재 ①

성령의 인치심

01 글은 화란 아플도른 신학대학의 교회사 명예교수인 Willem van't Spijker (1926~)

박사의 *De verzegeling met de Heilige Geest* (Kampen: De Groot Goudriaan, 1991)라는 단행본의 pp. 47-51을 번역한 것이다.

판 스파이커 교수는 1971년 화란자유대학교에서 '마틴 부서의 직분론' (*De ambten bij Martin Bucer*)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졸업논문은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은 최우수 성적(*magna cum laude*)을 받았다. 그는 유크레흐트 (Utrecht) 지역의 화란기독개혁교회 (Christelijk Gereformeerde Kirken, CGK)에서 다년간 목회 후 1972년부터 교단 신학대학인 아플도른 신학대학 (Theologische Universiteit van CGK in Apeldoorn)의 교회사 교수로 25년 간 봉직한 후 1997년에 은퇴하였다.

컬빈과 부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연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많은 저서들을 남긴 그는 특히 부서 연구와 컬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의 교회론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 명성을 자닌 학자이다. 현재 활동 중인 그의 제자들로는 아플도른의 Herman Selderhuis 교수, 장신대의 최윤배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Ecclesiastical Office in the Thought of Martin Bucer* (E. J. Brill), *Calvin: Die Kirche in ihr Geschichte* (V & R), *Luther en Calvijn*, *Luther: Belofte en ervaring*, *Reformatie en geschiedenis*, *Triptiek van de geschiedenis*, *Geest, woord en kerk*, *Gemeenschap met Christus* 등이 있다.

저자의 동의를 받아 본서를 계속해서 번역 연재할 예정이며 최종 단계에 이르러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작품들을 또한 번역 소개할 계획이다.

그리스도와 자신의 말씀 가운데 계시 하나님의 고난을 말씀하신다면 누가 그가 신뢰할 만하다고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자신의 말씀 가운데서 정당화되어야 한다(시 51:6).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신뢰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을 이렇게 믿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치는 대이는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뢰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인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신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확신에 도달할 수 있는가?

I.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성령의 인치심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에 맞서서 성령의 사역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는 재세례파들에게도 발견된다. 따라서 종교개혁 시대에 관해서 항상 말씀과 성령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성령이 강조되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권위를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교회가 믿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것이 로마교의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령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주장에 맞서서 종교개혁은 믿음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성령의 사역에 놓여 있는 것 이지 집단적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믿음의 근거가 교회의 교제 내에서 개인적임을 뜻한다.

또한 재세례파들과의 논쟁이 벌어



졌다. 이들은 믿음의 근거를 인간의 마음, 즉 성령의 내적 음성에서, 그리고 구원의 체험과 관련된 감정에서 찾았다. 종교개혁은 이들과 대항하여 말씀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는 종교개혁의 성령에 대한 호소가 제한적이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소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한 호소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로마교와 재세례파와의 투쟁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확신의 기저로서 이렇게 두 가지 기초를 언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논함에 있어서 루터와 쥐빙글리(Zwingli), 그리고 루터와 칼빈에게 있어서 강조점의 차이를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루터는 항상 열광주의자들에 대하여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루터가 불행하였던 시기에서 나타나서 그를 괴롭혔다. 루터는 그들이 죄를 짓는 가운데 성령을 논한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루터는 성령 사역의 종류와 성격에 대하여 적절하게 성경의 본문을 설명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는 그가 구원의 확실성과 관련하여 성령의 사역을 논의함을 뜻한다.

루터는 이 주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라는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을 사용하였다. 이 본문에 대해서 루터는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지함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죽는 것이 말씀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분이라고 인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예외적이며 어리석은 것으로 들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그가 신뢰할만하지 않다고 인칠 수 있다는 뜻인가?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그의 신뢰성이 결정된다는 뜻인가? 그러나 루터는 “나는 우리가 그의 일을 받았다고 항상 해석하며 우리를 이를 정반대로 읽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처음부터 비참함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참되시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람들이나 세상이 위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자신의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고난을 말씀하신다면 누가 그가 신뢰할만하다고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가운데서 정당화되어야 한다(시 51:6).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신뢰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믿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치는 데 이는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신뢰할만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치는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신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확신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루터는 주제를 바꾸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논의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참되시며 그의 말씀에 있어서 완전히 신뢰할 만하다고 인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설교와 설교의 말씀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불어넣으시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고 외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은 하나님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으신다.

루터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인친다’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두 가지 개념을 서로 연결시킨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인치시는 분은 성령 이시다. 사람들이 단지 믿음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내적 서클 (circle) 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루터는 성령의 이러한 사역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한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엡 4:30)”.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인치심을 받았는가? 주님을 위해서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기업에 관한 보증에 상응하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는 입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거하신다 (엡 1:13, 14). 그는 그의 은사를 사용하여 이를 기록했고 마음에 새겼는데 이를 통하여 보증, 인 그리고 확실함에서 비롯되는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돈을 축적함으로 가능한 것 이 아니다. 이제 당신은 인치심을 받았고 보증을 받아서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선택함을 받은 자로 여겨질 것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 이런 방식으로 신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게 된다. 신자가 내적 확신을 지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고 말하도록 성령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인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치는 행위와 말씀에 의한 성령의 인치심의 결합을 통하여 루터가 말씀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의 가치를 충분하게 인정할 수 없다. 말씀은 아주 탁월한 은혜의 수단이다.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이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이

순서를 바꾸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믿음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다. 말씀과 믿음, 믿음과 말씀이 서로 작용하는 바로 이 곳에 성령께서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에 대해 루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과 기록이 함께 작용한다. 입을 통해 전해진 말씀은 기록된 말씀보다 더 효력적이다. 기록된 언어라는 수단을 통하여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과 인치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손에 펜을 잡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놀랍게 변화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심어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된다. 그들은 보증, 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뢰성에 대하여 일점의 의심도 지니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신뢰할만하다는 지식은 마음 속에 주어진 놀라운 보물과 같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던져 버리고 대신 악마가 자리잡게 만드는 자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그의 말씀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참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신뢰할 수 없소!”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롬 4:20). 그의 마음에 분명하고 아름다운 글자로 인을 봉했던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새겨진 인을 소유하였던 것이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만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 분의 말씀이 참되다고 말함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하므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영광을 돌렸다. 동시에 그는 마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시는 성령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렸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데 이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믿는 것, 참되게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음속에 그리는 믿음을 지니고 있을 따름이다. 그들은 마치 까마귀와 앵무새가 말하듯이 이에 대해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참되다는 사실을 완전히 납득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믿음은 살아있는 문서, 인, 마크, 그리고 확신이어야 하는데 이는 또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신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천국으로 변화시키신다.” 의롭다고 칭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겨야 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섭기는 것을 뜻한다. 인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참되시다고 인쳐야 한다. 또한 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것을 뜻한다. 말씀으로 성령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아주 먼 거리, 아니 영원의 거리를 메우신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

루터의 신학은 말씀의 신학이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러나 이는 이론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그러나 그는 위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를 행하신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아기 예수를 통

여, 세상에 의해 경멸함을 받은 말씀을 통하여 이를 행하신다. 이렇게 루터 신학의 모든 것은 하나가 되어 말씀,십자가, 그리고 믿음의 신학이 되는데 이는 또한 루터에게 성령의 신학이었다. 우리는 그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참되다고 인친다. 성령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뢰성을 인쳐 주시는데 이로 인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

- 다음 호에는 '마틴 부서' 편이 계속될 예정임